

광양시, 친환경 자원단지 건립 시동

환경협, 일본 청소공장 등 견학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입지 후보지 광양읍 두 곳 선정해 지난달 사라실 예술촌 합동 설명회

광양시 지속 가능한 환경협의회가 최근 일본 스기나미 청소공장과 무사시노 클린센터를 방문, 대안을 모색했다. 광양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광양시 지속 가능한 환경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일본 스기나미 청소공장과 무사시노 클린센터를 견학했다.

스기나미 청소공장은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했음에도 지하차도 진입 방식, 에어커튼, 자동문 등을 통해 악취와 분진을 차단하고 있다. 첨단 여과장치로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열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판매해 운영 효율을 높였다.

무사시노 클린센터는 시민 참여로 입지를 선정하고, 유리 벽면 등을 설치해 내부를 개방하는 등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각 열은 시정과 체육관, 인근 학교 등에 공급되며 도시의 자원순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광양시 지속 가능한 환경협의회 관계자는 “일본 사례는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전면 공개, 투명성, 철저한 환경관리 등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광양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원순환단지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양시는 국비 593억원 등 총사업비 1,760억원을 투입해 소각시설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규모는 △소각시설은 1일 220톤 내외 △재활용 선별시설 1일 30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90톤 내외다.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입지를 2곳으로 압축했다. 최종 1순위(최적부지)는 광양읍 죽림리 산 132-2번지 일원, 최종 2순위(대안부지)로는 광양읍 죽림리 산 122-7번지 일원을 선정했다.

광양시는 지난달 16일 사라실 예술촌에서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양시는 전라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초안과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를 설명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정량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양시 지속 가능한 환경협의회 관계자는 “광양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순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생활화하며, 소각장을 지역 에너지 생산의 핵심 시설로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티 마스터들이 제3회 보성 티 마스터컵대회에서 보성 차로 새로운 특색 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티 마스터컵 대상 ‘말차 아인슈페너’

전국서 112점 출품 열띤 경쟁

제3회 보성 티 마스터컵 대상에 우수정 씨가 개발한 ‘보성 말차 아인슈페너’ 선정됐다.

19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티 마스터들이 ‘보성 차와 창의적 부재료’를 주제로 새로운 시그니처 음료를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올해 대회에서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참가한 우수정 씨가 개발한 ‘보성 말차 아인슈페너’가 대상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드러운 크림과 진한 보성 말차가 어우러진 이 음료는 비주얼, 맛과 향, 시장성과 창의성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점수를 얻으며 최고점을 기록했다.

대회는 예선(광주, 서울, 부산), 준결선(서울),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주무대에서 열린 결선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올해는 전국에서 112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중고등학교

생부터 전문 바리스타, 음료 프랜차이즈 종사자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보성 차의 무한한 가능성을 음료로 표현했다.

심사는 맛과 향은 물론 텍스처, 지속가능성, 창의성 등 1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위원단에는 음료 개발 분야의 전문가와 대형 프랜차이즈 연구개발 책임자, 식품기업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대회 심사위원들은 “보성 티 마스터컵은 차 업계에서도 주목하는 대한민국 대표 차 음료 대회로 성장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 차 시장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티 마스터컵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창의적인 음료가 많이 출품돼 보성 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보성 차가 전통을 넘어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성=백종두 기자

장흥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장흥군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분야는 △공약이행 완료율 △2024년 목표 달성률 △주민소통 실적 △웹 소통 실적 △최초 공약 대비 현재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장흥군은 5개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민선8기 기간인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은 4개 시군뿐이다.

장흥군은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아름다운 장흥, 군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장흥’을 목표로 정하

고, 세부 실행계획으로 71건의 공약을 확정했다. 이후 총괄부서인 기획홍보실을 중심으로 공약이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등 체계적인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했다.

해마다 공약이행 실적에 대해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의견을 반영해왔다.

장흥군은 전체공약 71건 중 43건을 이행 완료해 이행률 60%를 달성해 전남 시군 평균 52%를 상회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은 올해 들어 각종 주요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민선 8기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며 장흥발전의 로드맵이다. 지역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구례군 섬진아트홀에서 ‘제24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식이 열렸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수상작 130점 선정

신정옥 작 ‘사랑의 굴레’ 종합대상

구례군은 ‘제24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수상작 130점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압화대전에는 11개국 421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신정옥 작가의 ‘사랑의 굴레’가 종합

대상을 차지했다. 작품은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의 힘을 주제로 다루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구례군 구례읍 섬진아트홀에서 열렸으며 수상작들은 한국압화박물관에서 연중

상설 전시된다. 조남훈 압화대전위원장은 “중국과 독일 등 11개국에서 훌륭한 작품을 출품했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출품자들의 예술성과 완성도가 높아져 세계를 대표하는 압화 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손석봉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여수고 총동문 한마음 체육대회 열려

여수고등학교 총동문 한마음 체육대회가 최근 모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김해룡 총동창회장과 김연경 교장,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 조계원 국회의원,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 동문 1,000여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족구와 배구, 한궁 등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등 경품 추첨 등에 참여해 즐거움을 만끽했다.

김해룡 여수고 총동문회장은 “여수고는 지난 수십 년간 전통과 명예를 지켜온 자랑스런 배움터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를 육성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담양 창평면 지사협, 다문화가정에 운동화 선물

담양군 창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다자녀 가정 아동 10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지원했다.

창평면 지사협은 아이들이 원하는 운동화를 선물, 건강한 성장과 활기찬 일상을 응원했다.

운동화를 받은 다문화가정 아동 보호자는 “아이가 새 신발을 받고 무척 기뻐했다”며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창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업 운영, 관내 식당과 연계한 밑반찬 나눔,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담양=정일남 기자



효경 시니어타운, 곡성군에 쌀 4000kg 기탁

효경 시니어타운이 입면 노인요양병원 착공을 기념해 곡성군에 1,500만원 상당의 쌀 4,000kg을 기탁했다.

입면 노인요양병원은 효경 시니어타운의 효경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입면 삼오리에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했다.

박성진 효경 시니어타운 대표는 “입면 노인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돌볼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기부받은 쌀은 각 읍면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곡성=류성 기자